



즉시 배포용: 2017 년 8 월 1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비양심적 애완동물 판매업자 단속 법안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애완동물 판매업자를 규제하고 업계의 부도덕한 관행을 단속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S.5599/A.7195)은 뉴욕주에서 입양을 위해 동물을 운송 및 제공하는 법인 동물 보호소, 동물 구조 기구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게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여 주정부 규정을 준수하는지 처음으로 감독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양심적인 애완동물 판매업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적절한 감독을 피해 왔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법률상의 허점을 메워 기관 및 회사 규제를 허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동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행법은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시립 동물 보호소와 해당 시설에서 계약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를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현행법은 동물 애호 협회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을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체가 면책 혜택을 누리게 만들고, 비영리 동물 애호 협회를 조직하여 뉴욕주의 애완동물 판매업자 규정에 명시된 엄격한 수입, 검사 및 서류 요구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애완동물을 판매하려 하며, 적절한 음식이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법률상의 허점을 수정하고, 비영리 단체가 뉴욕주로 판매용 애완 동물을 수입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예방접종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미래의 애완동물 주인은 그들이 입양하려는 동물에 관한 보다 깊은 통찰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은 보다 철저한 감독과 규정 준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을 돕기 위해 놀랄 정도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훌륭한 단체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면책 혜택을 규제 대상이 아닌 변명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뉴욕주의

허가 받은 애완동물 판매업자의 수는 지난 5년간 40% 이상 감소하여, 법률상의 허점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새로운 법안은 동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진료를 받을 것이라는 대중의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투명성을 위한 조치를 요구 및 보장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지지해 주신 미국 동물 애호 협회(American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SPCA), 뉴욕주 동물 보호 연맹(New York State Animal Protection Federation) 및 뉴욕주 수의학회에 감사드립니다.”

Kenneth Zebrowsk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 구조 기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동물들에게 평생의 가족을 찾아주는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법망을 피해 상태가 좋지 않은 아픈 동물을 수입하는 암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이들은 비영리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망 뒤에 숨어서 애완동물 판매업자 규제를 피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뉴욕주는 이 법률상의 허점을 막고, 이러한 기관을 규제하며,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중요한 법안에 신속히 서명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